

담당 부서	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수급대책과	책임자	과 장	김준호 (044-202-7962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숙 (044-202-7976)



“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것이 現 정부 고용정책의 핵심”

- 이성희 차관, 추석 앞두고 지역 뿌리기업인 ‘㈜동성하이텍’ 방문(경북 경주)

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2일(금),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 뿌리기업인 ㈜동성하이텍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,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
정부는 지난 2차례에 걸쳐 ‘빈일자리 해소방안’(1차 3월, 2차 7월)을 발표했으며, 「범정부 일자리TF」를 구성하여 대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뿌리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. 그 결과, 최근 빈일자리 수가 전년동월대비 1.3만개 감소(’23.7월 기준)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. ※ (빈일자리 수) ’22.7월 22.9만개 → ’23.7월 21.6만개

이날 방문한 ㈜동성하이텍(근로자수 30명)은 동종 업계의 심각한 구인난 상황에서, ‘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’을 통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올해 2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.

* 지역 구인난 업종의 취업·채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사업의 지원요건·수준을 우대(PLUS) 지원

정부는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적기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내년에는 ‘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’, ‘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’ 등 구인난 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·확대*하고, 전국 고용센터의 ‘신속취업지원TF’ 등을 통해 구인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며, 아울러,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담은 「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」도 연내 발표한다.

* (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) ’23년 348억원 → ’24년 641억원 〈확대〉
(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) ’24년 483억원(청년 2.4만명 지원) 〈신설〉

이성희 차관은 “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것이 現 정부 고용정책의 핵심”이라고 말하며, “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

참고 1 「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」 개요

□ 개요

- 자치단체가 중앙일자리사업(고보기금 등)에 '자치단체 지원예산' (균특회계)를 추가(PLUS),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개발·시행
 - * (국정과제 118-4번)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
- '23년은 조선업, 반도체, 뿌리산업, 농촌 농번기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개선 등 집중 지원

■ 조선업 플러스사업 예시(구인난 개선 지원)

- 대기업 기술연수원을 통한 협력사 직원 훈련시,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등 PLUS 지원
 - ↳ (훈련수당) <정부> 월 20만원(고보기금) + <자치단체> 월 80만원(균특)
- '청년내일채움공제'의 경우, 지원대상 확대(PLUS) 등 조선업 특성에 맞게 요건 완화
 - ↳ (연령) 34 → 폐지, (사업장 이동) 불가 → 허용, (공제금 지급) 납입후 2 → 1년

□ 지원대상: 광역단체(기초단체 컨소시엄) 대상 공모·선정

- 공모 시 지원대상 구인난 산업을 제시하고, 해당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세부사업 설계하여 산업별로 참여
 -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한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내용 구체화
- (지원내용) 직업훈련, 근로자·기업장려금, 고용서비스 등 중앙일자리사업의 지원수준 상향, 지원연령 확대,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내용 추가(PLUS) 지원(매년 선정·심사)

■ 사업 프로세스

(자치단체) 사업설계 → (고용부) 공모·선정 및 컨설팅 통해 사업계획 보완 →
(지방관서-자치단체) 사업추진 협약체결 → (자치단체) 사업집행 → (고용부) 평가

□ '23년 예산: 348억원

* 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~30% 대응자금 부담

참고 2 「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」 개요

□ (개요) 빈일자리 업종* 구인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지원

* 빈일자리 업종(총 10개): 조선업, 뿌리산업, 물류운송업, 보건복지업, 음식점업, 농업, 건설업, 해운업, 수산업, 자원순환업(빈일자리 해소방안 1차('23.3월), 2차('23.7월))

□ (지원대상) '23.10.1.~'24.9.30. 중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

□ (지원수준) 취업 후 3개월 100만원 + 6개월 100만원 (최대 총 200만원)

□ (정부 예산안) '24년 예산 총액 483억(1년 한시사업)

□ (지원방식)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민간위탁기관에 지원금 신청

※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세부지원 내용은 12월 별도 안내 예정